

# 문장 표현 방법



지은이 장덕진

## 차 례

1.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 (꾸미는 말 넣기).....	2
2. 흥내 내는 말을 넣어 재밌게 표현 (의성어, 의태어 넣기).....	2
3. 이음말을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.....	3
4. 묘사 → 생생하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표현 방법.....	7
5.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(비유법) → 무엇을 다른 사물에 빗댄...	9
6.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(강조법)...	13
7. 문장 표현 방법 해답.....	17

다목적 글소리 샘  
세종규칙 한글 연구소 제공  
<http://www.hangeulstudy.com>



☞ 의태어란 → 모양, 모습을 본떠 만든 말. (영금영금, 뭉게뭉게)

연습⑥) 내 동생은 냇가에서 ( ) 물장구를 치며 노니다.

연습⑦) 봄바람이 ( ) 불어옵니다.

연습⑧) 청소 미화원 아저씨께서 땀을 ( ) 흘리십니다.

연습⑨) 글짓기는 안 하고 ( ) 놀고 있습니다.

연습⑩) 가을밤이면 귀뚜라미가 ( ) 읊니다.

연습⑪) 하늘엔 구름이 ( ) 떠다니고, 바람이 ( ) 불어오면 난 시골 할머니 생각이 ( ) 떠오릅니다.

연습⑫) 내가 찬 공이 ( ) 굴러가면 동생은 ( ) 웃어요.

3. 이음말을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.

☞ 이음말의 종류

◎ 그리고→앞 문장 = 뒤의 문장(같은 성격)

◎ 그리하여→앞 내용을 하기 위한 방법을 뒷문장에 제시

◎ 그러면→앞 내용을 한다면 가능과 추측을 뒷문장에 제시

◎ 그래서, 그러므로→앞 문장의 원인에 대한 결과 문장

◎ 그런데, 그렇지만, 하지만, 그러나→앞 문장에 대한 반대 문장

◎ 그러자→앞의 내용이 이루어지자 곧 뒤의 내용이 이루어짐

◎ 그러면서→앞의 내용과 동시에 뒤의 내용이 이루어짐

(1) 그리고 → 앞과 뒤의 문장을 같은 성격으로 이어줍니다.  
(그래서 가장 착한 이음말이라고 불러 줍니다.)

- ㄱ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. 그리고 (철수는) 체육도 잘한다.  
(임자말) (풀이말) (임자말) (풀이말)
- ㄴ 철수는 공부를 잘하고, 체육도 잘한다.  
(임자말) (풀이말)

‘한다. 그리고’가 → ‘하고,’로 바뀌었지요. 즉 ‘니다. 그리’가 없어지고 ‘하고’만 남고 **쉽표(,)**가 생겼습니다. 또 달라진 것 없어요? 임자말이 두 개였는데 하나 없어졌죠.

☞ 그러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려면 ……?

- ㄱ 순이는 공부를 못하<sup>㉠</sup> 체육도 못한다.
- ㄴ 순이는 공부를 못한다. 그리고 (순이는) 체육도 못한다.

<sup>㉠</sup>은 ‘그리고’를 말합니다. 또 ‘못하’는 ‘못한다.’로 바뀌면서 ‘못한다. 그리고’로 되는 것입니다. 하나 더 있어요. 두 문장이니까 임자말이 하나 더 있어야지요.(앞 뒤 임자말이 같으면 생략)

(2) 그렇지만 → 앞과 뒤의 문장을 서로 반대의 성격으로 이어줍니다. (그래서 **착하지 못한 이음말**이라고 불러줍니다.)

- ㄱ 아름이는 공부를 잘해요. 그렇지만 (아름이는)체육은 못해요.
- ㄴ 아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, 체육은 못해요.

‘해요. 그렇지만’이 → ‘하지만,’으로 바뀌었지요. ‘이 요. 그렇’이 없어지고 ‘하지만’만 남고 **쉽표(,)**가 생겼지요. 또 무엇이 달라졌지요? 임자말이 두 개였는데……. 그러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?

ㄱ 동수는 노래는 잘 부르지만, 공부는 못한다.

ㄴ 동수는 노래는 잘 부른다. 그렇지만 (동수는) 공부는 못한다.

지만은 ‘그렇지만’ 을 말합니다. 또 ‘부르’ 는 ‘부른다.’ 로 바뀌면서 ‘부른다. 그렇지만’ 으로 되는 것입니다.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요? 무엇입니까? ( )

※ 자, 그러면 다른 이음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?

연습⑬) 사촌형은 아는 것이 참 많아서, 늘 새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줍니다. (두 문장으로 고쳐 보시오.)

연습⑭) 친한 사람이 이사를 하면 선물로 합성 세제를 사 가지고 갑니다. ( ) 이사한 집에는 합성 세제가 많이 쌓이곤 합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 고쳐 보시오.)

연습⑮)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철새가 이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,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. (두 문장으로 고쳐 보시오.)

연습⑯) 겨울에는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. ( ) 여름에는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보내기 위해 얇고 성긴 옷을 입습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…….)

연습⑰) 은점이도 은실이의 꿈을 파고들면서 킁킁거리자, 은빛 물체가 ‘뿡’ 떠올랐습니다. (두 문장으로 고쳐 보시오.)

연습⑱) 날이 밝았다. ( ) 선생님은 어린 제자의 집을 찾아

갔습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 고쳐라)

연습⑱) 만 죽순은 예전에는 말렸는데, 지금은 소금에 절여서 보관한다. (두 문장으로…….)

연습⑳) 책은 서경덕이 발돋움하면 충분히 땅을 선반 위에 있습니다. ( ) 경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은 내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. (이음말 넣고, 한 문장으로)

연습㉑) 아저씨는 밤나무 세 그루가 지난 장마 때 쓰러졌다면서, 싹이 돋은 밤 다섯 톨을 사 가지고 가셨습니다. (두 문장으로 고쳐라)

연습㉒) 달려오다가 넘어졌다. ( ) 준구는 약을 한 병 사갔습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 고쳐 보시오.)

연습㉓) “너희가 착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면,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야.” (두 문장으로…….)

연습㉔) 새끼연어는 1년쯤 강에서 살면 10센티미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. ( ) 먼 바다로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큰 고기로 자랍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)

연습㉕) 물을 더럽히면 결국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므로,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우리들이 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. (두 문장으로…….)

연습㉖) 더러워진 물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독한 세제 때문입니다. ( ) 우리는 집에서 독한 세제를 쓰지

말아야 합니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…….)

연습⑳) 주영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비를 뒤쫓았습니다만, 나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. (두 문장으로 만들어라.)

연습㉑) 경찰은 소매치기 강도를 보고 쫓아갔습니다. ( ) 그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. (이음말을 넣고, 한 문장으로)

연습㉒) 무사는 공주를 위협하여, 자기가 공주를 구한 것처럼 임금님을 속였던 것이다. (두 문장으로…….)

연습㉓) 도서관이란 기록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·정리한다. ( )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 곳이다. (이음말을 넣어 보고, 한 문장으로…….)

4. 묘사 → 사물의 모습이나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하여 읽는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방법

예)☞ 오늘 5교시는 3반과 4반의 줄다리기 경기가 있었다. 신호총 소리에 맞춰 줄다리기가 시작되자, 우리는 젓 먹던 힘까지 다해 잡아당겼지만 지고 말았다.

☞ 학교 앞까지 늘어선 코스모스를 보았다. → 학교 앞까지 늘어선 코스모스 물결에 시선을 옮겼다.

☞ 바람이 살짝 지나갔다. →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다.

☞ 희찬이의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. → 희찬이의 등 뒤로

피어있던 노을이 코스모스 꽃밭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.

☞ 감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한 내 마음은 학교 생각뿐이  
있습니다. →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.

※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해 보시오.

연습㉑) 사촌 동생 명희가 먼저 말을 했다. ( )

연습㉒) 눈에는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 
( )

연습㉓) 곤히 잠자던 나는 전화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.  
( )

연습㉔)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 
( )

연습㉕) 만세 소리가 아우내의 하늘과 땅을 요란하게 했다.  
( )

연습㉖) 어른들은 모두 상호의 책임감과 정직함을 칭찬하였다.  
“이 다음에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이야.” ( )

연습㉗) 난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.  
( )

연습㉘) 총성과 포탄소리는 밤하늘을 시끄럽게 했다.  
( )

연습㉙) 누구나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것이다.  
( )

연습㉚) 캄캄한 밤이었다. 동쪽 산마루에 달이 뜨면서 서서히  
밝아지기 시작했다. ( )

5.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(비유법) → 무엇을 다른 사물에 빗댄

(1) 직유법 → 직접 잘 드러나도록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
( ‘마치’ 는 대부분 생략합니다.)

㉠ 마치 ~ 처럼

- 예) ➤ 큰 부품은 ( ) 건물처럼 보였고, 초록색 판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보였다. (큰 부품 = 건물, 초록색 판 = 작은 도시)  
➤ “( ) 체육관처럼 생긴 저 곳에서는 무엇을 하나요?  
(체육관 = 저 곳)

※ 다음 글의 ( ) 안에 직유법으로 표현한 말을 써 보시오.  
( ‘마치’ 는 생략해도 됩니다.)

- 연습㉠) 검푸른 바다, 동해 가운데 ( ) 두 바위섬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.  
연습㉡)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사 들고 들어오시자, 어머니는 ( ) 매우 기뻐 하셨습니다.  
연습㉢) ( ) 날아오는 화살  
연습㉣) ( ) 몰려오는 중공군  
연습㉤) ( ) 밝은 도심의 밤거리  
연습㉥) 우리 반 순이는 노래를 어찌 잘 부르는지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( ) 시원하게 느껴집니다.  
연습㉦) 그 때 좋은 생각이 ( ) 떠올랐습니다.  
연습㉧) 얼음판에 내린 달빛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, ( ) 스케이트장은 빛나고 있었다.

② 마치 ~ 듯(듯이)

예) 👁️ 선영이는 급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질렀다.

“아이쿠, 깜짝이야.”

사내아이는 움찔하면서 ( ) 선영이를 이상하다는 듯  
이 쳐다보았다.

(소리를 버럭 지른 선영 = 선영이를 이상하게 여김)

👁️ 조상들의 숨결이 ( )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듯 했다.

(조상의 숨결 = 살아 숨 쉬)

👁️ 송월대에서 내려다보니 ( ) 파란 비단폭을 굵이굵이  
펼쳐 두른 듯한 백마강이 한 눈에 들어왔다.

(내려다 본 백마강 = 파란 비단폭을 굵이굵이 펼쳐 두른)

※ 다음 글의 ( ) 안에 위와 같은 직유법으로 표현해 써 보시  
오. ( ‘마치’ 는 생략해도 됩니다.)

연습④⑨) 오랜 가뭄 끝에 애타게 기다리던 비는 ( ) 점  
심때까지 내렸다.

연습⑤⑩) 땅거미가 깔리자, ( ) 적막이 온 산을  
휩쌌다.

연습⑥⑪) ( ) 총소리

연습⑦⑫) 푸른 ( ) 전나무 숲이 나타났다.

연습⑧⑬)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감도는 운주봉 꼭대기에서 내려  
다 본 나는 ( ) 좋은 기분이 들었다.

③ 마치 ~ 같이(같이)

☞ 병 속을 ( ) 땅 속같이 어둡게 해 주기 위해 길을 검은 종이를 썼다. (병 속 = 땅 속)

☞ 선영이는 정들었던 학교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( )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.  
(낯선 사람들의 행동 = 주인 행세를 하는 행동)

연습④) 그 녀의 눈은 ( ) 맑고, ( ) 초롱초롱 반짝인다.

④ 마치 ~ 같다.

☞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마치 개미 떼와 같았다.  
(가득 메운 아이들 = 개미 떼)

☞ 당시 사람들의 기술을 생각하니, 우리 조상들의 빼어난 슬기와 피나는 노력이 기동 하나, 기와 한 장에까지 서려 있는 것 같았다.

※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위와 같은 직유법으로 고쳐 보시오.

연습⑤) ( ) 이것이 이 산에 온 사람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이 다. ( )

연습⑥) 대청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니, ( ) 바닷속으로 몸과 마음이 빨려 들어간다. ( )

연습⑦) 난 어린이 대공원에 오니까 아프던 머리가 다 나왔다. ( )

⑤ 마치 ~ 양

☞ 나는 순이가 ( ) 공주인 **양** 놀고 있는 모습이 알밋다.  
(순이의 모습 = 공주의 모습)

연습⑤) 반장인 경아가 ( ) 빠기며 행동하기 때문에  
반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다.

(2) 은유법 → 간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

① 내 동생 나비  
(내 동생 = 나비)

② 내 마음은 호수요  
(내 마음 = 호수)

③ 조울줄 내리는 비는  
새싹의 젖줄  
(비 = 새싹의 젖줄)

④ 새싹이 눈을 감고 (조용히)  
강아지처럼 젖줄을 뺏다.  
(물을 뺏다 = 젖줄을 뺏다)

(3) 의인법 →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 
표현하는 방법

☞ “지우개야, 너는 참 고마운 친구야.”  
“응, 그래 고맙다. 앞으로 글씨도 깨끗이 잘 쓰고 공부  
도 잘해라.” (지우개를 사람으로 보았지요.)

☞ “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, 누구 나이가 제일 많은 지 따  
져보자.”  
노루가 말하였습니다.  
“그래, 나이가 많은 차례대로 먹자.”  
토끼가 말하였습니다. (노루와 토끼를 사람으로 보았지요.)

6.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(강조법)

(1) 과장법 →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, 또는 많거나 적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방법

☞ 계룡산의 높이는 888m다 → 계룡산의 높이는 88800cm다.  
(m를 cm로 나타내어 더 높은 것처럼 보임)

☞ 암자를 지나 30분가량 산길을 따라가니, 몇 억만 덩이나 뒹직한 돌들이 온 산야에 널려 있었다.  
(많은 덩이를 몇 억만 덩이로 표현하여 더 많은 것처럼 보임)

※ 다음 줄 친 부분을 과장법으로 고쳐 보시오.

연습⑤9)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. ( )

연습⑥0) 큰 뱀이 머리를 쳐들고 나를 쫓아왔다. ( )

연습⑥1) 쓰레기가 많은 산과 들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.  
( )

(2) 반어법 → 숨어 있는 속뜻과 전혀 반대되게 표현하는 방법

☞ 공부할 때, 숙제할 때, 친구들과 놀 때면 방해부리면서 같이 놀자고 때를 쓰는 개구쟁이 내 동생. 그래도 난 그런 내 동생이 좋아요. (개구쟁이란 말썹꾸러기라는 뜻이지요. 그러나 마음속에는 귀엽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.)

☞ 우리 어린이들은 내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. (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)

※ 줄 친 부분을 반어법으로 고쳐 보시오.

연습②) 자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늙은 어머니는  
고려장을 한다. ( )

연습③) 방학을 하면 기숙사 학생들은 뽀뽀이 흘어진다.  
( )

연습④) 밤이 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. ( )

연습⑤) 사신은 깜짝 놀라며, 박씨의 지혜를 칭찬한다.  
( )

(3) 반복법 → 같거나 비슷한 말, 문장 등을 되풀이 표현하여 강  
조하는 방법

예) ㄱ 개나린 개나린(반복법) ㄱ 나비는 나비는(반복법)  
ㄴ 노란 배가 되었다. ㄴ 하얀 손님 되었다.  
ㄱ 물길 따라 떠간다.  
ㄴ 멀리멀리 떠간다. (부분 반복법)

① 진종일 단풍잎에 곱게 쓴 애기	다음처럼
② 재잘대던 새들이 들려줍니다.	짜을 이루고
③ 아침마다 정답게 반겨 달라고	있는 것은?
④ 해님이 빠알강게 써 놓았어요.	



① 밤마다 은행잎에 써 놓은 편지	① = ①
② 지나가던 바람이 전해 줍니다.	② = ②
③ 저녁마다 찾아와 같이 놀자고	③ = ③
④ 달님이 노오랑게 써 보냈어요.	④ = ④

위와 같이 글자 수, 이루어진 모양, 모습이 닮아 보이지요.

이것도 반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(4) 도치법 → 글의 순서나 내용을 서로 바꾸어 강조(앞의 내용을)  
하는 방법

예) 바람 따라		시냇가에 갔었다,
들길 따라	⇨	바람 따라
시냇가에 갔었다.		들길 따라.
(순서가 맞는 글)		(순서가 바뀐 글)

- ① 순서가 바뀐 글에서 앞의 내용 ‘시냇가에 갔었다’ 를 강조함(앞의 내용 강조)
- ② 순서가 바뀐 강조하는 말 다음에는 반드시 쉼표(,)를 찍고, 글 뒤 끝에는 온점(.)을 찍는다.

연습⑥⑥) 다음은 동시의 일부분이다. 줄 친 부분을 순서를 바꾸어(도치법) 뜻이 잘 통하도록 강조해 보시오.

동동  
개나리꽃 하나  
외나무다리 밑으로  
떠내려간다.      ] → \_\_\_\_\_

줄줄줄줄  
내 동생이 날 따라와요. → \_\_\_\_\_

(5) 설의법 → 분명한 내용 즉 결론을 의문형(?)으로 만들어 더  
큰 효과를 얻으려는 표현 방법

- ☞ 순이야, 물 좀 떠다 줄래? (싫어도 떠다 줄 마음이 생겨요.)
- ☞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루하루 보람 있게 살고, 바른 생활을 하여 부모님의 가슴에 기쁨의 꽃을 달아 드리 는 것이 아닐까요? (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효도 라고 강조)

※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위와 같은 설의법으로 고쳐 보시오.

- 연습⑥7) “승훈아, 내일 영수와 야구장에 가기로 했는데, 함께 같이 가자. ( )
- 연습⑥8)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더러 속상할 때도 있지만, 그것 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. ( )
- 연습⑥9) 설악 등반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대청봉을 눈 앞에 두고 그냥 내려가지 않는다. ( )

(6) 영탄법(감탄법) → 느낌표를 사용하여 감탄하듯 강한 감정 을 나타내는 방법

- 예) ◎ 발 아래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!
- ◎ 푸른 오월이여!
- ◎ 아름다운 빨간 장미꽃!
- ◎ 듣기 싫다! 창피한 줄 알아라!
- ◎ 수천 년 동안 우리 겨레와 따뜻한 정을 나누어 온 꽃이 개나리요, 또 진달래가 아닌가!
- ◎ 문방구에서 연필 한 타스를 훔친 철수가, 뒤돌아보니 경찰 아저씨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!

※ 다음 밑줄 친 부분을 **느낌표**를 사용하여 감탄하듯 강한 감정으로 표현하시오.

연습⑩) 싱그러운 푸른 5월이 왔습니다. → \_\_\_\_\_

연습⑪) 정원에서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차가 막혀 뛰어가 보았지만, 경아는 벌써 가고 없었다. → \_\_\_\_\_

연습⑫) 오락실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할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→ \_\_\_\_\_

연습⑬) 앞날을 위하여 책 좀 읽으십시오. \_\_\_\_\_

연습⑭) 5월은 어린이날, 어버이날이 들어 있는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. → \_\_\_\_\_

## 4. 문장 표현 방법(해답)

연습①) 파란(높은), 물끄러미(멀리서)

연습②) 노란(파란), 훤히(나풀나풀)

연습③) 예쁜(착한), 엉엉(슬프게)

연습④) 빨간(먹음직스러운), 주렁주렁

연습⑤) 귀여운, 아기, 큰, 잘

연습⑥) 침병침병(찰방찰방)

연습⑦) 사랑사랑(솔솔)

연습⑧) 줄줄(뽕뽕)

- 연습⑨) 폼지락폼지락(빈둥빈둥)
- 연습⑩) 귀뜨귀뜨
- 연습⑪) 등등, 사랑사랑(술술), 문득(모락모락)
- 연습⑫) 데굴데굴, 방글방글(빙글빙글)
- 연습⑬) 많다(많습니다), 그래서
- 연습⑭) 그래서
- 연습⑮) 있습니다. 그러나
- 연습⑯) 그러나
- 연습⑰) 깡깡거렸습니다. 그러자
- 연습⑱) 그러자
- 연습⑲) 말렸다. 그런데
- 연습⑳) 그런데
- 연습㉑) 쓰러졌다. 그러면서
- 연습㉒) 그러면서
- 연습㉓) 지내라. 그러면
- 연습㉔) 그러면
- 연습㉕) 된다. 그러므로
- 연습㉖) 그러므로
- 연습㉗) 뒤쫓았습니다. 그렇지만
- 연습㉘) 그렇지만
- 연습㉙) 위협하였습니다. 그리하여
- 연습㉚) 그리하여
- 연습㉛) 꺼냈다 또는 걸었다.
- 연습㉜)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
- 연습㉝) 전화벨 소리에
- 연습㉞) 조용히
- 연습㉟) 뒤흔들었다.
- 연습㊱) 큰 그릇
- 연습㊲) 마셨다
- 연습㊳) 흔들어 깨웠다.
- 연습㊴)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.
- 연습㊵)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.
- 연습㊶) 쌍둥이처럼
- 연습㊷) 어린애처럼

- 연습④) 빗발처럼  
연습④) 개미떼처럼  
연습⑤) 대낮처럼  
연습⑥) 시냇물처럼  
연습⑦) 번개처럼  
연습⑧) 거울처럼  
연습⑨) 물을 퍼붓듯이  
연습⑩) 움찔하듯  
연습⑪) 콩 볶는 듯한  
연습⑫) 병풍을 두른 듯한  
연습⑬) 선녀가 된 듯한  
연습⑭) 이슬같이, 별같이 또는 다이아몬드같이  
연습⑮) 선물인 것 같다.  
연습⑯) 빨리 들어가는 것 같다.  
연습⑰) 나온 것 같다.  
연습⑱) 선생님인 양  
연습⑲) 수많은  
연습⑳) 팔뚝 굵기 만한  
연습㉑) 쓰레기로 뒤덮인  
연습㉒) 고려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.  
연습㉓) 흠어지지 않을 수 없다.  
연습㉔)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.  
연습㉕)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.  
연습㉖) 떠나려간다,  
    외나무다리 밑으로.  
    날 따라와요, 내 동생이.  
연습㉗) 같이 갈래?  
연습㉘)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요?  
연습㉙) 내려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?  
연습㉚) 5월!  
연습㉛) 가고 있지 않은가!  
연습㉜)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!  
연습㉝) 읽어라!  
연습㉞) 어린이날!, 가정의 달!